

# 외국인 대학원생의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김정선 \*\*·황용수화 \*\*\*·차미령 \*\*\*\*

## -차 례-

1. 서론
2. 연구 방법
3. 결과 분석
  - 3.1. 수업 전 설문 조사 결과
  - 3.2. 수업 후 설문 조사 결과
4. 논의 및 결론

---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양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70000003035)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 수료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 수료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인 대학원생의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논문 쓰기 역량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H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 전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 전 설문은 소집단 활동 경험과 학문적 쓰기 경험을, 수업 후 설문은 수업 효과와 논문 쓰기 과정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수업 전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학습자들 대부분은 소집단 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만족도도 높았다. 그리고 학문적 글쓰기 경험이 있었으나, 체계적 교육은 부족하였다. 수업 후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논문 쓰기 수업이 논문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로는 협업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와 문제 해결, 논문 쓰기의 지식과 방법 습득때문이라 답하였다. 학습자들은 논문 쓰기 과정에서 주로 자료 분석과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구 방법, 언어 자료 분석 도구, 선행연구 검토의 의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집단 활동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통과 팀원의 참여 태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집단 활동의 구체적 지침과 교수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며, 소집단 활동을 하며 학습자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학문적 글쓰기, 소집단 논문 쓰기, 소집단 활동, 외국인 대학원생, 설문 조사

## 1. 서론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가운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습자의 최종 목표는 학위 취득이다.<sup>1)2)</sup> 논문은 엄격한 형식이 있고, 논리성을 갖춘 글로 선행연구 검토, 개요 작성, 내용 쓰기, 서지사항, 각주 등 논문 작성의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글이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논문 쓰기 역량은 대학원 수업에서는 과제를 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제출하며 훈련한다. 최근에는 논문 쓰기와 관련한 교과목들이 생겨나고 있으나<sup>3)</sup>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개별 지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논문 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외국어인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학부에서 접하지 못했던 글의 형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원 수업에서 소집단 활동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sup>4)5)</sup> 한국인 대학원생은 학부에서부터 논문을 접하며 대학원에서는 수업, 스터디/세미나 등의 학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논문을 읽고 쓰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대학원생은 문화의 차이, 유학생으로서의 거리감,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 수업 이외의 학문 공동체 활동의 참여가 드문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 수업에서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문 공동체 속에서 협력적으로 학생 스스로의 역량을

- 
- 1)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의 수는 2003년 12,314명에서 시작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23년도 전체 유학생의 수는 18,184명이고, 이 가운데 대학원생은 48,152명(석사과정생 30,011명, 박사과정생 18,141명)을 차지하고 있다.
  - 2) 최근 석사과정을 비논문 트랙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쓰기는 대학원 과정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3) <논문작성의 이론과 방법>,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등의 교과목이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 4) 소집단 활동은 둘 혹은 그 이상의 학습자들이 모여 공동의 노력과 자기 주도적 언어 사용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을 포괄하여 말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2014: 1135).
  - 5) 소집단에 대한 연구는 국어교육, 영재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집단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팀의 구성 방법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김신자 외(2003), 이영민(2006), 김미원 외(2016), 박재용(2012), 이영미(2015), 강인에 외(2010) 등이 있다.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sup>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인 대학원생의 소집단 활동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논문 작성 단계마다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 후 수업 시간에 소집단 활동으로 소논문 쓰기를 진행한다. 모든 소집단 활동을 마친 후에는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대학원생 논문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장르 분석 관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수연(2012), 이주희(2012), 조은영(2012), 윤여옥(2012), 이선영(2015), 박수연(2016) 등에서는 한국어교육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논문의 선행연구, 연구방법, 결과, 결론, 국문 초록 등에 나타난 장르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장르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논문에서 나타난 문제점, 모어 화자가 작성한 논문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학원생 논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논문 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로는 정다운(2014)<sup>7)</sup>, 김정은(2017)<sup>8)</sup> 등이 있다. 두 연구는 모두 교수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논문 쓰기의 교육 내용을 보면 여전히 교사가 강의하고 학습자가 배우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학습자 간의 협력 학습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sup>9)</sup> 학습자들은 스스로 논문을 쓰는 것보다 학문 공동체에서 동료와 같이 논문을 쓰며 여러 면에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소집단 쓰기 활동에 대한 한국어교

6) 권오경(2015)에서는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이는 소극적인 수업 태도는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문화로 기인한다고 보고, 소집단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7) 정다운(2014)은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논문 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논문 쓰기 수업이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았다.

8) 김정은(2017)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서론 부분에 대한 장르 분석을 한 후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서론의 쓰기 교육 모형을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자의 논문 쓰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9) 협동 학습의 원리 중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 의존, 개인적인 책임 등이 있는데(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2014: 1135), 이러한 원리는 협동 학습의 효과로 볼 수 있겠다.

육 분야에서의 연구도 여러 편이 있다.<sup>11)</sup> 소집단 쓰기 활동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고 쓰기 과정에서의 협력적 영향을 강조한 연구(오기원 2007, 김지혜 2015, 권혜경 2016), 소집단 쓰기의 교육 방안 연구(장옥정 2015, 정다운 2019)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는 대부분 어학원의 학생이거나 학부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는 박성원 외(2014)외, 노가군(2018), 이승원(2018), 황수관(2021)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소집단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녹음, 설문 조사, 면담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소집단 활동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소집단 활동의 수행 과제로는 토의하기, 주제별 쓰기, 작문 쓰기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논문 쓰기의 과제 형식은 많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원생 대상으로 연구한 소집단 활동은 소집단 활동의 원리와 절차 등을 소개하고 소집단 활동에서 논문 작성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대학원생의 논문 쓰기 역량을 기르는 데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수업은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논문 쓰기’와 ‘소집단 활동’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0) 소집단 논문 쓰기의 장점에 대해 학습자들의 실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교수자의 향후 수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11) 한국어교육의 소집단 활동 연구는 말하기(손명양 2015), 읽기(나재진 2009) 등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손명양(2015)에서는 소집단 토론 활동을 통한 말하기 수업의 지도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나재진(2009)에서는 소집단 읽기 활동을 적용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읽기 활동에서 한국어 학습자 간 나타난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 전과 수업 후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내용에 따라 양적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예상한 답변 이외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소재 H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33명이다.<sup>12)</sup>

수업은 8주차까지는 해당 교과목의 이론을 교수자가 강의하였고, 9주차부터는 강의 주제와 관련한 논문 쓰기를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소집단 논문 쓰기 활동 수업에서는 논문 쓰기의 전반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학교에서 개발한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에 대한 수업 동영상 시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집단 활동 수업에서는 논문 작성 단계에 따라 ‘주제 정하기, 연구 방법 선택하기, 연구 내용 계획하기’ 등 매주 활동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수업이 끝난 후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교수자는 다음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소집단 구성은 교수자가 학위 과정, TOPIK 등급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4-5명으로 하였다. 소집단 구성의 기준으로 삼은 요인 중 학위 과정과 학년(기수)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여 학문 공동체 안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업 전 설문 조사는 2주차에 소집단 활동에 대한 경험과 학문적 쓰기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업 전 설문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문항 수
기본 정보	- 이름, 성별, 국적 - 학위 과정, 학부/대학원 전공, 학위 과정 소재 국가	12문항

12) 수강 인원은 석사 과정생 22명, 박사 과정생 11명이다. 수강생 정보는 4.1 조사 결과에 기술한다.

	- 한국어 학습 기간, TOPIK 등급, 한국어 실력 자기 평가(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소집단 활동 경험	-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 유무와 내용 - 이전 소집단 활동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5문항
학문적 쓰기 경험	- 한국어 보고서 작성 경험 유무 - 한국어 학위논문 작성 경험 유무 - 논문 작성법 학습 방법	3문항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 후에는 16주차에 수업에 대한 효과, 논문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소집단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 효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논문 쓰기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집단 활동의 핵심인 상호작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수업 후 설문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문항 수
논문 쓰기 수업의 효과	- 논문 쓰기 능력 향상에 대한 도움 여부 및 이유	3문항
논문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 논문주제 선정 시 어려움의 정도와 내용 - 선행연구 검토 시 어려움의 정도와 내용 - 연구방법 선택 시 어려움의 정도와 내용 - 자료 수집 시 어려움의 정도와 내용 - 자료 분석 시 어려움의 정도와 내용 - 논문 작성 시 어려움의 정도와 내용 - 어려움 해결 방법	13문항
소집단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 조원들과의 협력 정도 - 소집단 활동에서 좋았던 점 - 소집단 활동에서 힘들었던 점	3문항

설문 조사 방법은 구글폼을 이용하였고,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로 번역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인 연구자

가 번역하여 분석하였다.

### 3. 결과 분석

#### 3.1. 수업 전 설문 조사 결과

수업 전 설문 조사는 학습자의 기본 정보와 학술적 쓰기와 관련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3.1.1. 기본 정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총 33명으로 기본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자 정보

구분				구분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인원	비율
성별	남자	2명	6.1%	학부 전공	한국어(교육)	15명	45.5%	
	여자	31명	93.9%		인문계열	15명	45.5%	
국적	몽골	1명	3.0%		자연계열	2명	6.1%	
	베트남	1명	3.0%		의학계열	1명	3.0%	
	중국	29명	87.9%	석사 과정 이수 국가	한국	11명	100.0%	
	한국	2명	6.1%		석사 전공	한국어(교육)	11명	100.0%
학위 과정	석사 과정	22명	66.7%	한국어 학습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4명	12.1%	
	박사 과정	11명	33.3%		3년 이상 -5년 미만	11명	33.3%	
학부 과정 이수 국가	외국 <sup>13)</sup>	26명	78.8%		TOPIK	5년 이상	18명	54.5%
	한국	7명	21.2%	6급		27명	81.8%	
				5급		4명	12.1%	
				없음 <sup>14)</sup>		2명	6.1%	

<표 3>을 보면, 조사 대상자 중 중국인 학습자가 26명(87.9%)으로

13) 외국은 중국(24명), 몽골(1명), 베트남(1명)에서 학부 과정을 이수한 국가이다..

14) '없음'이라 응답한 학생은 한국인 학생 2명이다.

가장 많았으며, 몽골인과 베트남인 학습자가 각각 1명씩이었고, 한국인 학습자가 2명이었다. 학위 과정은 석사 과정이 22명(66.7%), 박사 과정이 11명(33.3%)이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은 5급이 4명(12.1%), 6급이 27명(81.8%)이었으며, 한국어 학습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4명(12.1%), 3년 이상 5년 미만 11명(33.3%), 5년 이상이 18명(54.5%)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26명(78.8%)은 학부 과정을 자신의 나라에서 마쳤으며, 학부 전공은 15명(45.5%)이 한국어/한국어교육이었고, 한국어/한국어교육을 제외한 인문 계열이 15명(45.5%), 자연 계열이 2명(6.1%), 의학 계열이 1명(3.0%)이었다. 학부 과정의 전공과 석사 과정의 전공이 다른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은 석사 과정을 모두 한국에서 마쳤으며 전공 또한 한국어/한국어교육이었다.<sup>15)</sup>

소집단 논문 쓰기를 위해서는 소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듣기 능력과 논문 쓰기에 필요한 읽기, 쓰기 능력 모두 높은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들이 언어 기능별로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표 4> 언어 기능별 한국어 수준(자기 평가)

구분	아주 잘함		조금 잘함		보통		조금 못함		아주 못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말하기	4명	12.1%	9명	27.3%	15명	45.5%	4명	12.1%	1명	3.0%
듣기	5명	15.2%	20명	60.6%	8명	24.2%	0명	0.0%	0명	0.0%
쓰기	2명	6.1%	3명	9.1%	18명	54.5%	9명	27.3%	1명	3.0%
읽기	6명	18.2%	20명	60.6%	7명	21.2%	0명	0.0%	0명	0.0%

<표 4>에서 구어 능력인 말하기와 듣기를 보면, 말하기는 13명(39.4%)이 ‘잘함’으로 응답하였으며, 15명(45.5%)이 ‘보통’, ‘못함’이 5명(15.1%)이었다. 듣기는 ‘잘함’이 25명(75.8%), ‘보통’이 8명(24.2%)이었으며, ‘못함’을 답한 응답자는 없어 학습자들은 말하기에

15) 한국어/한국어교육 전공도 인문계열에 포함되나 대학원 진학 학과와 학부 전공과의 일치성을 보기 위해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비해 듣기는 잘한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문어 능력인 쓰기과 읽기를 보면, 쓰기는 ‘잘함’이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5명(15.2%)이었으며 ‘보통’이 18명(54.5%), ‘못함’이 10명(30.3%)으로 언어 기능 영역 중 가장 부족한 기능이라고 응답하였다. 읽기는 ‘잘함’이 26명(78.8%), ‘보통’이 7명(21.2%), ‘못함’은 0명으로 듣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리하면, 소집단 활동과 논문 쓰기에 필요한 말하기, 쓰기 능력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3.1.2.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수업 이전에 소집단 활동 수업을 경험하였는지,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 시기가 언제인지 조사하였다.

<표 5>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 유무 <표 6>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상세)

구분	인원	비율
있음	30명	90.9%
없음	3명	9.1%
합계	33명	100.0%

	구분	인원	비율
국가	한국	19명	63.3%
	중국	3명	10.0%
	한국, 중국	8명	26.7%
학위 과정	학부	4명	13.3%
	대학원	10명	33.3%
	학부, 대학원	16명	53.3%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음’이라는 응답이 30명(90.9%), ‘없음’이 3명(9.1%)으로 대부분의 학습자가 소집단 활동 수업을 경험하였다.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있음’이라 응답한 학습자 30명 중 19명(63.3%)은 한국에서, 3명(10.0%)은 중국에서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으며, 8명(26.7%)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에서 소집단 활동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집단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명(13.3%)은 학부에서, 10명(33.3%)은 대학원에서, 16명(53.5%)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서 소집단 활동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즉 60% 이상의 학습자가 소집단 활동 수업은 한국에서 경험하였으며, 박사과정생 11명을 고려하면 다수의 응답자가 한

국의 수업에서 소집단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16)</sup>

다음은 학습자가 경험한 소집단 활동 수업의 형태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이전 소집단 활동 수업의 세부 활동 유형(중복 응답)

구분	인원	비율
발표하기(교재 요약/자료 조사 발표하기)	26명	86.7%
수업 지도안/교과서 만들기	18명	60.0%
소논문 쓰기 <sup>17)</sup>	11명	36.7%
논문 읽고 토론하기	11명	36.7%
국어 평가문항 만들기	2명	6.7%
역할극하기, 더빙하기	2명	6.7%

이전 소집단 활동의 세부 유형은 소집단별로 교재를 요약하거나 자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26명(8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수업지도안/교과서 만들기로 18명(60.0%)였다. 그 다음은 소논문 쓰기가 11명(36.7%), 논문 읽고 토론하기가 11명(36.7%)이었으며, 평가문항 만들기, 역할극하기, 더빙하기가 각각 2명(6.7%)씩이었다.

이전 소집단 활동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이 ‘만족’, ‘매우 만족’이 21명(67.6%), ‘보통’이 9명(29.0%), ‘불만’은 1명(3.2%)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8> 이전 소집단 활동 수업의 만족도

구분	인원	비율
매우 만족	1명	3.2%
만족	20명	64.5%
보통	9명	29.0%
불만	1명	3.2%
매우 불만	0명	0.0%
합계	31명	100.0%

16)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취득하며 소집단 활동 수업 경험이 모두 있었다.

17) 소논문 쓰기와 논문 읽고 토론하기의 11명은 모두 박사 과정생이었다.

이전 소집단 활동 수업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소집단 활동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최소 2개 이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이전 소집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먼저 조원들과의 토론을 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는 답변(1), 조원들과의 소통으로 표현 능력, 책임감, 협동심, 배려심 등을 기를 수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2).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3), 과제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는 의견도 있었다(4).<sup>18)</sup>

- (1) ㄱ.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달라서 아이디어를 더 창의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S16><sup>19)</sup>
  - ㄴ.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S20>
  - ㄷ.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있어서 자신의 못 생각나는 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S14>
- (2) ㄱ. 팀원과의 교류기회가 많아서 자신의 표현능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S28>
  - ㄴ. 자기의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S30>
  - ㄷ. 협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과제라 협동심은 물론 배려심도 생기게 됩니다. <S26>
- (3) ㄱ. 소집단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만날 수 있음 <S1>
  - ㄴ. 협력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더 친해질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S16>
- (4) ㄱ. 열심히 공부하는 쌤들과 같이 파트를 나눠 과제를 준비하는 것은 혼자하기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다. <S18>
  - ㄴ. 혼자가 아니라서 마음은 좀 든든한 느낌이고... <S19>

다음으로 이전 소집단 활동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어려웠던 점에 대해 최소 2개 이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이전 소집단 활동에 대해

18) 그밖에 ‘학습 방식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다, 학위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하였다는 답변도 있었다.

19) <S00>은 학습자 구분 기호이다.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의 문제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토론이 잘되지 않고, 국적이 서로 다른 학습자들로 구성된 팀에서는 더욱 힘들어하였다(5). 한국어 능력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학습 수준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6). 또한 조원들과 과제 분담, 의견 조율 등의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적극적이지 않은 팀원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7).

- (5) 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팀원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기가 어렵다. <S32>
  - ㄴ. 언어능력과 배운 것 그리고 경험도 달라서 과제에 따라서 저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학생들끼리만 과제를 하고 저는 하는 것이 없이 의견만 내고 참가하지 못하고 과제를 내는 것이 어려웠다.<S3><sup>20)</sup>
- (6) 학습 수준이 달라서 학습 효율이 낮음. <S22>
- (7) ㄱ. 사람마다 과제 내용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통일하기 어려웠다. 각자 말아야 할 부분을 배분할 때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어려웠다 <S8>
  - ㄴ. 성격이 좀 강한 사람과 같은 팀이 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S28>
  - ㄷ. 적극적이지 않고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조원을 만나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회의를 자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학생도 많다. <S4>

이 외에도 소집단 활동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 외에도 모여 토론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정하기가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8). 특히 박사과정생들에게서는 토론을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9).

- (8)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렵다.(만나서 같이 토론하고 싶었는데 항상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요) <S19>
- (9) ㄱ. 제 개인적인 능력 부족으로 인해 팀장으로서 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좀 괴로웠습니다. <S16>

---

20) S3 학생은 중국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 소통의 어려움이 다른 학생에 비해 더 크다고 하였다.

ㄴ. 박사로서 석사를 잘 이끌지 못할 때 미안함을 느낍니다. <S10>

### 3.1.3.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어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지,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이 있다면 언제 하였는지 질문하였다.

<표 9>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

구분	인원	비율
있음	29명	87.9%
없음	4명	12.1%
합계	33명	100.0%

<표 10>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 시기

구분	인원	비율
학부	7명	24.1%
대학원	10명	34.5%
학부+ 대학원	12명	41.4%
합계	29명	100.0%

<표 9>를 보면, 조사한 학습자의 87.9%인 29명이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4명(12.1%)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 중 7명(24.1%)은 학부에서의 보고서 작성 경험이었고, 10명(34.5%)은 대학원에서의 보고서 작성 경험이었다. 12명(41.4%)의 학습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 중 한국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경험과 작성 시기를 조사하였다.

<표 11> 학위논문 작성 경험

구분	인원	비율
있음	19명	57.6%
없음	14명	42.4%
합계	33명	100.0%

<표 12> 학위논문 작성 시기

구분	인원	비율
학부	9명	47.4%
대학원	5명	26.3%
학부+ 대학원	5명	26.3%
합계	19명	100.0%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쓴 경험에 대한 답변 결과는 <표 11>과 같이 19명(57.6%)의 학습자가 경험이 있다고 하여 절반 이상이 한국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었다. 그중 9명(47.4%)은 학부에서, 5명(26.3%)은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었으며, 5명(26.3%)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한국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학부에서부터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 응답자는 14명(73.7%)이었다.

논문 작성법에 대한 학습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개의 선지를 주고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논문 작성법 학습 방법(복수 응답)

구분	인원	비율
논문 읽고 스스로 터득	21명	64%
학교 수업	10명	30%
논문 작성법 교재	8명	24%
기타 <sup>21)</sup>	1명	3%
인터넷 강의	0명	0%

<표 13>을 보면, ‘논문 읽고 스스로 터득’이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21명(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교 수업이 10명(30%), 논문 작성법 교재가 8명(24%)이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하였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60% 이상의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였고, 30% 정도가 학교 수업 시간에 논문 작성법을 배웠다.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은 있지만 논문 작성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전 설문 조사를 정리해 보면, 학습자들은 대다수가 소집단 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비교적 만족하였다. 만족 이유로는 조원들과의 의견 공유를 통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표현 능력, 책임감, 협동심, 배려심 등을 기를 수 있었으며, 인간관계, 과제 부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반면에 힘들었던 이유는 의사소통, 의견 조율, 과제 분담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소극적인 팀원의 참여 태도와 박사과정생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보고서, 학위논문

21) 교수님의 지도를 통하여 논문작성법을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등의 학문적인 글 쓰기 경험은 있었지만 스스로 학문적인 글 쓰기에 필요한 쓰기 능력과 소집단 활동에 필요한 말하기 능력은 보통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논문 작성법에 대한 학습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활동 논문 쓰기 수업을 시작하는 주차에 교수자가 논문 작성법, 소집단 활동의 의의와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3.2. 수업 후 설문 조사 결과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논문 쓰기 수업의 효과, 논문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소집단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3.2.1. 논문 쓰기 수업의 효과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이 논문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29명(87.9%)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4명(12.1%)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표 14> 소집단 활동 수업의 논문 쓰기 능력 향상 효과

구분	인원	비율
도움이 되었다	29명	87.9%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명	12.1%
합계	33명	100.0%

논문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논문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소집단 활동으로 다른 팀원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10), 협업을 통해 책임감 등을 배웠다고 하였다(11). 또한 논문의 작성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교수의 지도로 논문 쓰기의 지식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12). 논문을 수정하면서 논문 쓰기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 자체의 향상도 있었다고 하였다(13).

- (10) ㄱ. 선배님이 계시고 다들 같이 토론할 수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S14>
  - ㄴ. 조원들끼리 같이 토론하고 서로 생각과 의견을 들어줘서 과제를 더 잘 완성할 수 있다. <S24>
- (11) 협업을 통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S23>
- (12) ㄱ.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논문을 참고하고 스스로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스스로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S33>
  - ㄴ. 논문을 작성할 때, 주제 선정, 용어, 표현, 그리고 논문의 구조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조원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논문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조원들이 서로 배우고 격려해서 논문 작성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S1>
  - ㄷ. 목차 설정에 있어서 교수님의 조언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론, 이론적 배경 등 지금껏 배울 기회가 없던 내용을 피드백을 통해 새로 배울 수 있어서 논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S4>
- (13) ㄱ. 조원이 쓴 내용을 고치면서 나의 쓰기 능력도 향상된 것 같다. <S32>
  - ㄴ. 활동 일지를 쓰는 것도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S12>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팀원들이 의사소통 없이 각자 맡은 부분만 써서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14). 그리고 팀에서 한국어 능력과 전공 지식, 논문 지식이 부족한 팀원이 있어서 힘들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15).

- (14) ㄱ. 다들 각자 맡은 부분만 쓰고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 <S18>
  - ㄴ. 사람마다 맡은 부분이 달라서 총체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 어려운 것 같다. <S13>

- (15) ㄱ. 우리 팀은 반 정도 이번 학기 입학한 학생이고, 학부가 모두 다른 학과 출신이라서 한국어 전공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 공부 과정에서 거의 생각이 없었다. <S15>  
 ㄴ. 팀의 유일한 박사로서, 1기 썸을 도와줬는데 자신은 발전이 없습니다. <S26>

### 3.2.2. 논문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의 어려움의 정도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먼저 논문 작성 과정의 각 단계별 어려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논문 작성 과정의 어려움 정도

단계	평균 점수
논문주제 선정	3.52점
선행연구 검토	3.06점
연구방법 선택	3.15점
자료 수집	3.12점
자료 분석	3.61점
논문 작성	3.33점

각 단계의 평균 점수를 보면 ‘자료 분석’ 단계가 3.61점으로 가장 어려웠으며 ‘논문 주제 선정’(3.52점), ‘논문 작성’(3.33점)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방법 선택’(3.15점)과 ‘자료 수집’(3.12점)이었으며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낀 단계는 ‘선행연구 검토’(3.06점)였다.

다음은 각 단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려움의 이유를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정리하였다.

#### 1) 주제 선정의 어려움

논문 주제의 선정은 두 번째로 어려움의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단계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창의적이고 새로운 주제를 찾기가 어려웠고(16), 주제에 대한 확신

이 부족하여 주제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17).

- (16) ㄱ. 다른 논문에서 다뤘던 내용이라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주제라면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S6>
  - ㄴ. 새로운 주제를 찾기가 힘들었다. <S32>
- (17) ㄱ. 처음에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넓었다. <S30>
  - ㄴ. 논문 주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S16>

그 밖에 주제를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하며 발생한 어려움이 있었다. 선정하며 팀원들과의 의견 불일치(18), 팀원들의 한국어 지식 부족, 불성실한 태도(19)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 (18) 조원 사람마다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많아 주제를 쉽게 정하지 못합니다. <S33>
- (19) 팀원이 아무 생각없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도 찾아보지 않으면 정리 작업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같아 힘들었다. <S27>

## 2) 선행 연구 검토의 어려움

학습자들은 선행 연구 검토가 가장 어려움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어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참고문헌 검색과 정리, 참고문헌 표시 양식에 대해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20). 선행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21).

- (20) ㄱ. 검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S7>
  - ㄴ. 선행연구를 찾고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S26>
  - ㄷ. 참고문헌 표시의 양식을 몰라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좀 고민했어요. <S14>
- (21) ㄱ. 어떤 논문의 내용은 좀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S21>
  - ㄴ.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비판적 시각으로 선행연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S4>

그 외에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선행연구 검토 단계부터 언급하였다(22). 소집단 활동임에도 팀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23).

(22) 선행 연구 검토를 쓰는 것이 어려웠다. <S18>

(23)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혼자 완성해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팀원들이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서운했다. <S27>

### 3) 연구 방법 선택의 어려움

학습자들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연구 방법의 선택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24). 연구 자료를 분석하며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였고(26), 특히 설문 조사 방법을 선택한 경우 조사 항목을 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27).

(24) ㄱ. 연구 방법에 대해 잘 몰랐다. <S9>

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S33>

ㄷ. 자료 수집 방식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S13>

(25) ㄱ. 교재, 말뭉치를 활용하여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S32>

ㄴ. 말뭉치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S10>

(26) 설문조사를 기획했는데, 설문조사 항목을 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웠다. <S4>

### 4) 자료 수집의 어려움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수집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27).

(27) ㄱ.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연구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빨리 찾을 수 없습니다. <S33>

ㄴ. 자료의 분류와 정리하는 것 <S22>

자료 수집은 연구 방법에 따라 각각의 어려움이 있었다. 말뭉치 자료와 관련해서는 말뭉치 수집, 용례 추출,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28). 설문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모집, 예상과 다른 응답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29). 교재 분석의 경우 분석할 한국어 교재가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30).

- (28) ㄱ. 말뭉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S7>
  - ㄴ. 말뭉치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S10>
  - ㄷ. 말뭉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용례를 추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S17>
- (29) ㄱ. 설문응답을 받을 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어려웠다. <S23>
  - ㄴ. 설문 조사의 문항이 단답형이어서 예상 답안과 달랐고 사용할 수 있는 답안이 많지 않았다. <S9>
- (30) ㄱ. 교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교재를 구할 수 없었다. <S16>
  - ㄴ. 시간 관계와 보유 자료 부족으로 교재 3권만 분석했음. <S1>

##### 5) 자료 분석의 어려움

자료 분석은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단계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준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학습자들은 분석 내용 파악, 분석 기준 수립이 어렵고, 자료 분석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렵다고 한다(31). 분석 후에는 분석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고(32), 자료 분석에 필요한 지식 부족, 자신의 능력 부족을 느끼며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33)

- (31) ㄱ. 분석을 처음 해봤는데 어떤 각도에서 분석해야 할지 몰랐다. <S9>
  - ㄴ. 자료가 많아서 분석 기준 좀 고민하고 분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분석한 결과도 아마 주관적이라서 자료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S14>
- (32) ㄱ.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S23>
  - ㄴ. 예상과 결과가 다를 때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었다. <S6>

- (33) ㄱ. 이론적 지식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S10>
  - ㄴ. 자료를 분석할 때 가끔 보충해야 할 새로운 지식이 있다. <S8>
  - ㄷ. 말뭉치의 양이 너무 많고 나의 실력이 너무 부족했다. <S7>

자료 분석을 소집단으로 진행하며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분류 기준이 있어도 팀원들이 서로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34),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일 때 분석이 어려웠다고 한다(35). 그리고 자료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36).

- (34) ㄱ. 조원들이 ‘크다’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분류할 때 혼란스러웠다. <S32>
  - ㄴ. 팀원의 사용 습관에 따라 한 의미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 있어 많이 토론했다. <S25>
- (35) 자료 조사는 조원들이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들 조사할 때 뒤에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모든 어휘를 다 가져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표로 정리하지도 않고 중복한 부분도 빼지 않고 그냥 그런 조사 결과 보냈었어요. 결국 다른 조원들이 그 사람이 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같은 일이 2번 3번을 했네요. <S19>
- (36) 시간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 <S18>

#### 6) 논문 작성의 어려움

논문을 작성하며 겪는 어려움으로는 논문의 구조와 형식, 표현 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다(37). 내용 면에서는 논문의 논리적 체계를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39).

- (37) ㄱ. 논문 구조와 격식을 잘 몰랐습니다. <S28>
  - ㄴ. 논문 용어의 규범성에 대해서는 더 연습해야 한다. <S33>
  - ㄷ. 논문 작성할 때 선택해서 쓰는 어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S8>
  - ㄹ.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길고 어려운 문장은 작성하기 어려웠다. <S11>
  - ㅁ. 논문을 작성했을 때 구어체와 문어체가 헷갈릴 수 있다. <S25>
- (38) ㄱ. 논문의 논리의 체계를 잡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S23>

ㄴ. 논리적으로 쓰는 것과 매끄럽게 쓰는 것이 어려웠다. <S16>

조별로 논문을 작성하며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팀원들이 각자 나눠서 기술한 부분이 내용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39), 논문 작성 경험 부족과 느린 작성 속도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고 하였다(40).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원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41).

(39) 팀원 4명이 쓴 내용을 합칠 때 문장이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S18>

(40) ㄱ. 많이 써보지 못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S10>

ㄴ. 처음으로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였기에 작성속도가 느렸다. <S7>

(41) ㄱ. 조원들이 쓴 부분을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S32

ㄴ. 팀원 중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스스로 공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지도 않아요. 몇 번 수정해 달라고 해도 그대로 제출하는 거예요. <S19>

논문 쓰기 단계에서는 표절과 관련한 의견들도 있었다. 다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팀원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42).

(42) ㄱ. 쓴 내용이 다른 논문의 내용과 비슷해서 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했다. <S6>

ㄴ. 어떤 사람이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표시하지 않고요, 자기 쓴 부분 어떤 부분이 자기가 쓴 거 어떤 부분이 인용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S19>

## 7) 논문 쓰기 활동에서의 어려움 해결 방법

논문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질문하였다. 학습자들은 조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거나 교수, 선배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였다(43).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내용적인 문제, 논문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였다고 한다(44).

- (43) ㄱ. 조원들과 만나서도 토론하고 온라인에서도 토론하였다.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았다. <S1>
  - 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S23>
  - ㄷ. 박사과정 선배님이 다 알려주고 했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다른 모르는 나라 학생들이랑 같이 과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략) 박사과정 선배님 덕분에 이번 과제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S3>
- (44) ㄱ. 같이 토론하거나 다른 논문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찾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S32>
  - ㄴ. 논문 작성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다른 논문의 형식이나 구조를 참고하면서 배우고 수정했다. <S25>

학습자 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45).

- (45) ㄱ. 다들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렇게 참아서 넘어갔어요 <S19>
  - ㄴ.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26>

### 3.2.3. 소집단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조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협력 정도, 소집단 활동에서의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협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조원들과의 협력 정도

먼저 각 조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지 질문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조별 협력 정도

구분	인원	비율
매우 그렇다	9명	27.3%

그렇다	9명	27.3%
보통이다	10명	30.3%
그렇지 않다	4명	12.1%
매우 그렇지 않다	1명	3.0%
합계	33명	100.0%

이번 소집단 활동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각각 9명이었으며, '보통이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10명(30.3%)이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총 5명(15.1%)으로, 약 85%의 학습자들은 소집단 활동에서 팀원과의 협력이 보통 이상의 만족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2) 소집단 활동에서 좋았던 점

조원들과의 소집단 활동에서의 좋았던 점에 대해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을 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이라 평가하였다(46). 또한 조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접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4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원들의 장점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48).

- (46) 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S5>
  - 나. 불확실한 내용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S33>
  - 다. 짧은 시간 안에 서로 협력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아서 논문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S16>
  - 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조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S6>
- (47) 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S11>
  - 나. 선배에서 많은 학습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S20>
- (48) 가.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S8>
  - 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팀원이 생각해 주고 있다. <S10>

학습, 지식 등의 측면 이외에도 소집단 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부

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인간 관계의 확장, 서로 학습을 독려하는 분위기 등도 소집단 활동을 통해 얻은 장점이라고 하였다(49). 또한 한국인과 같은 조일 경우 한국어 표현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50).

- (49) ㄱ. 책임감이 있는 팀원을 만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S18>
- ㄴ. 자료를 같이 수집할 수 있어서 시간을 많이 절약했다. <S32>
- ㄷ.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인에게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배우게 돼서 좋았다. <S27>
- ㄹ.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공부를 독촉하는 역할을 한다. <S15>
- ㅁ. 매주의 소집단 회의는 과제 진도를 독촉할 수 있다. <S24>
- (50) 한국어를 사용하여 교류하기 때문에 한국어 말하기를 제고할 수 있다. <S12>

### 3) 소집단 활동에서의 힘들었던 점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논문 작성 경험이 없는 조원, 쓰기 능력이 부족한 조원으로 힘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박사 과정 학생들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무거웠다고 하였다(51). 한국어로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며 한국어 능력의 부족,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52).

- (51) ㄱ. 논문을 쓴 경험이 거의 없는 것 <S13>
- ㄴ. 팀원의 능력 차이가 컸습니다. <S26>
- ㄷ. 쓰기 능력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조를 위해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책임이 너무 커서 힘들었다. 그리고 토론할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은 조원도 있었다. <S32>
- (52) 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와 표현이 어려웠다. <S11>
- ㄴ. 언어와 문화 차이, 배운 지식,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서 그런지 말이란 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S3>
- ㄷ. 다국적 팀원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S15>

조원들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53). 논의에 소극적 태도로 참여하는 조원으로 힘들었다고 한다(54).

- (53) 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었다. <S6>
  - 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S17>
  - 다. 사람이 많다 보니 의견과 진도의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 <S20>
- (54) 가.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팀원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S1>
  - 나. 팀원의 적극성은 높지 않았고 제가 과제의 진행을 추진하였다. <S18>

조원들과 회의를 하기 위한 일정 조정, 논의 시간 부족 등으로 힘들었다고 한다(55). 그 외에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친밀하지 않은 팀원들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었다고 하는 학습자도 있었다(56).

- (55) 가. 조원과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S23>
  - 나. 다들 바빠서 충분한 토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S16>
- (56) 팀원과 익숙하지 않는 사이였다. <S2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논문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 전 소집단 활동에 대한 경험과 학문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수업 내용에 반영하였다. 수업은 이론 수업 8주차와 소집단 논문 쓰기 8주차로 구성하였으며, 수업 후 논문 쓰기 과정의 어려움과 소집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논문 쓰기 과정에서 ‘자료 분석-논문 주제 선정-논문 작성-연구 방법 선택-자료 수집-선행연구 검토’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교육받

은 경험이 없어 자료 분석의 기준을 모르고 있었으며, 자료 분석에 필요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형태소 분석기, 음성 분석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분석은 연구 방법 선택, 자료 수집과 연관이 있는데 연구 방법에 따라 자료 수집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말뭉치 분석 연구, 설문 조사 연구 등 연구 방법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말뭉치 분석은 대규모 말뭉치를 처리하는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설문 조사의 경우 조사 목적,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항목 설정, 질문 방법 등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요소와 절차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자들은 논문 주제 선정은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선행 연구 검토는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논문 주제 선정이 선행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제 선정을 위한 것인데 선행연구 검토를 비판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비교적 어려움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문 주제 선정 시 선행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소집단 활동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과제 해결과 다양한 생각과 관점 공유, 과제 부담 감소, 시간 절약 등이라 하였다. 더불어 인간 관계의 확장도 긍정적이라 답하였는데 소집단 구성을 할 때 학위 과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정적 의견으로는 의견 조율과 같이 소집단 활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이외에도 외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소집단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 박사과정 학생의 책임감 등은 소집단 활동 수업을 진행하며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활동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한 교수자의 안내와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소집단 활동은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집단 활동의 의의와 참여 태도, 책임감, 의견 불일치와 갈등 발생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집단 활동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학습 태도와 관련이 있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점검과 교수자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22)</sup> 특히 정서적인 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소집단 활동을 하며 학습자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

22) 권오경(2014:58-59)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교사 중심적인 수동적인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bstract]

## Perceptions of Small Group Thesis Writing Classes among Foreign Graduate Students

Kim Jungsun·Huang Rongsuihua·Che Meiling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mall group thesis writing classes among Foreig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provide insights into improving their thesis writing skills. To this end, pre- and post-class surveys were conducted with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H University in Seoul. The pre-class survey examined their experiences with small group activities and academic writing, while the post-class survey assessed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 and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thesis writ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pre-class survey revealed that most students had experience with small group activities and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m. Additionally, while they had some experience with academic writing, systematic education in this area was lacking. The post-class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thesis writing class was helpful in improving their thesis writing skills. The reasons cited included the sharing of diverse ideas and problem-solving through collaborat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methods related to thesis writing.

Students mainly faced difficulties in data analysis and topic

selection during the thesis writing process, suggesting a need for education on research methods, language data analysis tools, and the significance of reviewing prior research. While small group activities allowed for the sharing of various opinions and ideas, communication issues and the participation attitudes of team members were highlighted as challeng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guidelines for small group activities, continuous feedback from instructors, and education on the importance of considerate and respectful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during these activities.

**Key words** : Academic purpose, Korean language education, Academic writing, Small group paper writing, Small group activities, Foreign graduate student, Survey

## [참고문헌]

### ■ 단행본

박창원·김성원·정연경, 『논문 작성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29-76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2014, 1135-1136면.

###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인에·정은실, 「팀 구성 방식에 따른 학습활동 만족도: 질적 자료 분석에 의한 사례 연구」, 『교육방법연구』 22(3), 2010, 67-95면.
- 권오경,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소집단 활동 양상 분석 및 교육적 적용」,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 권혜경, 「협력적 쓰기 활동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2016.
- 김미원 · 이희주, 「탐구성 방법에 따른 학습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1(4), 2016, 113-124면.
- 김신자·이정민, 「웹기반 토론에서 성격유형에 따른 집단구성 방식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4(2), 2003, 23-39면.
- 김정은,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텍스트 쓰기 교육 실행 연구: 학술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
- 김지혜, 「내용 지식 확장을 위한 협력적 쓰기 활동 연구: 중급의 수준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문논집』 74, 2015, 159-186면.
- 노가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소집단 세미나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8.
- 박성원·신동일,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2014, 103-158면.
- 박수연,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의 장르 분석 연구: <선행연구> 부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6.
- 박재용·이기영, 「소집단 구성 방식이 자유 탐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 소집단구성 방식을 달리한 두 중학교의 사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4), 2012, 686-702면.
- 손명양, 「소집단 토론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 『한국어교육연구』 2, 2015, 69-93면.
- 오기원, 「쓰기 협력 학습이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교육』 32, 2007, 171-198면.
- 윤여옥,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연구방법 부분의 장르

-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2.
- 이선영, 「외국인 유학생의 쓰기 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학 분야 학위논문의 장르 비교 분석: 선행연구 고찰 부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 이수연,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과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2.
- 이승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대화에 나타난 담화 구성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8.
- 이영미, 「대학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팀 구성방식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2015, 363-386면.
- 이영민, 「웹 기반 팀 학습 환경에서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팀 과제수행력, 팀워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2(3), 2006, 1-21.
- 이주희,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론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2.
- 장옥정, 「소집단 활동을 통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3.
- 정다운,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쓰기 수업 사례 연구», 『語文論集』 58, 2014, 487-516면.
- 정다운, 「내용 지식 구성을 위한 협력적 쓰기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 조은영,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국문 초록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2.
- 황수관, 「중국인 대학원생 조별 발표 과제 수행의 난점(difficulties)에 관한 사례 연구: 조원 회의 단계의 토론·토의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2021, 31-47면.